

# 불탑과 방편사리

경전을 중심으로<sup>1)</sup>

오인 중앙승가대학교 조교수

## 목차

### I. 들어가기

### II. 진신사리와 방편사리

#### 1. 진신사리

#### 2. 방편사리

##### 1) 방편사리의 연원

##### 2) 방편사리의 종류

###### (1) 법사리

###### (2) 연기법승

### III. 나가기

## 참고문헌

1) 본 논고는 2015년 10월 16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관 '백제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경전에 보이는 사리관 - 불교사상과 방편에서의 시각」이라는 논제로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불사리를 진신사리와 방편사리로 구분하였다.

진신사리는 근본팔타에 봉안한 석존의 사리로 한정하였다.

한편, ‘방편사리’라는 용어는 경전에도 출전이 없으며, 학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논자는 방편사리의 정의를 ‘진신사리가 아닌 것을 방편으로 진신사리화 한 것’이라고 하고, 근본10타설을 연원으로 보았다. 즉, 진신사리를 배분했던 병과 화장 후 남은 재로 세운 병타과 탄타이 시원인 것이다. 때문에, 진신사리 이외의 모든 사리가 방편사리이며, 연기법송, 법사리, 소타, 불상, 인조사리 등이 포함된다.

법사리는 경전을 사리화한 것으로, 방편사리를 대표한다. 법사리의 맹아는 『묘법연화경』에서 엿볼 수 있으며, 2세기의 카니슈카왕은 동판에 논장을 새기고, 타 내에 봉안하였다. 이후, 3-4세기에는 특히 반야경 계통에서 법사리 신앙이 전개되고, 『금강경』에서는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불타이 된다고 하였으며, 『유마힐소설경』 등에서는 불사리공덕보다 경전수지의 공덕이 수승하다고 강조하여 법사리 신앙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연기법송(pratītyasamutpādagāthā)은 불교의 연기법을 사구계로 표현한 내용으로, 연기계, 연생계, 법신계(dharmakāyagāthā)라고 한다. 불교문헌 중에서 ‘연기법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남해기귀내법전』이 유일하다.

연기법송은 『사분률』과 『오분률』 등의 율장과 다수의 경전에서 설한다. 『사분률』에는 산문으로 설해졌던 내용이 계송의 형식으로 정형화되는 것은 『대지도론』에서이며, 이후 연기법송은 계송의 형식으로 전승된다.

국내에서 발견된 석장사와 보원사지의 연기법송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출가사』나 『남해기귀내법전』 등의 계송과 일치하고 있어, 이 경전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진신사리, 방편사리, 병탑, 탑탑, 법사리, 연기법송, 남해기귀내법전, 석장사지, 보원사지

## I. 들어가기

사리신앙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사리장엄구가 중심이었으며, 사리신앙의 근본인 ‘사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리에 대해서도 경전에서의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들과 사전적인 정의만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러나, 사리를 친견할 때,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충족되는 않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논자만이 아닐 것이다. ‘사리란 무엇인가’하는 의구심에 대하여 강우방도 “수년간 사리장엄구 등의 연구를 진행하여왔지만 사리의 본질에 관한 것은 확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 사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을 갖는다.”<sup>2)</sup>고 하였다.

---

2) 강우방, 2009, 「미륵사탑 발견 사리장엄구와 왕궁리 탑 발견 사리장엄구의 상관성 - 장엄구 영기문의 상징구조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학술발표 논문집』, p210

또한, 사리의 개념뿐만 아니라, 관련 용어도 일정하지 않다. ‘사리’ ‘불사리’ ‘진신사리’ ‘전신사리’ ‘쇄신사리’ ‘골사리’ ‘신사리’ ‘법사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관련 연구자들도 이 용어들을 혼용하여, 엄격히 구별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리에 대한 개념정립의 어려움과 용어의 혼용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리의 원어가 약간의 의미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사리가 불교만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이며,<sup>3)</sup> 셋째, 불교 사리신앙의 원류가 역사적으로는 석존 입멸 후가 되지만, 경전상으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과 용어의 정립은 해당 학문의 시작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고에서는 경전을 통하여 진신사리와 방편사리에 대한 개념설정과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II. 진신사리와 방편사리

### 1. 진신사리

진신사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석존의 사리’라고 대답한다.

진신사리가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신대현은 “불상이나 불화 등 다

---

3) 특히, 주경미는 ‘불사리’를 ‘부처님의 신골사리’와 ‘불교의 사리’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경미, 2003, 『중국고대 불사리장엄연구』, p20) 사리의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라 본다.

른 모든 부처의 조형물이 불교와 붓다를 상징하기는 해도 실체 그 자체는 아닌 것이 비해, 사리 곧 석가모니의 유골인 진신사리는 석가의 신체의 일부로서, 석존 입멸 이후 수 천년이 지난 불교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석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유일한 매체이다.”<sup>4)</sup>고 한다.

하지만, 불사리는 역사적으로는 불상 출현 이전부터 있어온 성유물 신앙聖遺物信仰의 상징이었다. 당시는 석존 이외의 인물의 유골도 사리로서 숭배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출토의 예도 많았으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불사리는 단순히 석가의 유골이라고 할 수 없는, 성유물의 단계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유골이 성유물로 인식되는 것은, 성인숭배에 의한다. 석가 이외의 성인의 유골도 숭배될 가능성이 물론이며, 실제로 그러한 예가 있었다. 성스러운 유골의 확장은 불교의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sup>5)</sup>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불사리 신앙에서 그대로 수용한다면, 진신사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진신사리를 정의하고자 한다.

경전에서 진신사리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석가여래진신사리’<sup>6)</sup> ‘석가모니불진신사리’<sup>7)</sup> ‘석가불사리’<sup>8)</sup> ‘석가사리’<sup>9)</sup>라고 하여, 대부분 석존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sup>10)</sup> 학계에서도 대부분 진신사리는 ‘석

4) 신대현, 2006, 「진신사리의 한국 내 전파 과정에 대하여(I) - 신라의 각덕 및 자장이 전래한 진신사리를 중심으로」 『불교고고학』6, p40

5) 中村一基, 2006, 「日本〈仏舎利〉信仰史」 『岩大語文』11, pp1-2

6) 『佛祖歷代通載』권22 (『대정장』49, 724하) 釋迦如來真身舍利

7) 『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권중 (『대정장』55, 765하) 釋迦牟尼佛真身舍利

8) 『宋高僧傳』권23 (『대정장』50, 861상) ; 『廬山記』권2 (『대정장』51, 1032중) 釋迦佛舍利

9)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疏』권하 (『대정장』33, 521상) 釋迦舍利

10) ‘此是大士真身舍利’ (『金光明經』권4 (『대정장』16, 353하)), 또는 ‘諸佛真身舍利’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대정장』19, 86중))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

존의 사리’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전거로 본고에서는 진신사리의 범위를 ‘석존 열반 후에 수습한 사리, 즉 근본팔탑에 봉안한 사리’로 한정하고자 한다.

진신사리를 석존의 사리로 한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불사리신앙의 역사적 시원을 석존으로 보는 관점을 수용하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방편사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 2. 방편사리

### 1) 방편사리의 연원

‘방편사리’라는 용어는 경전에도 출전이 없으며, 학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용어는 근본팔탑 이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 사리신앙의 성격과 그 양상을 살펴봄에 있어 편리한 기준이 된다.

방편사리의 정의를 ‘진신사리가 아닌 것을 방편으로 진신사리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진신사리 이외의 모든 사리가 방편사리에 포함될 것이다. 즉, 연기법송, 법사리, 소탑, 불상, 인조사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진신사리 이외에 경전 등을 불탑에 봉안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주경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교의 사리신앙은 교조 석가모니의 유해 송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리의 개념은 점차로 확장되어 그의 제자들의 유해나 혹은 석가모니의 말씀까지도 사리로서 받아들여졌다. 물론, 실제 석가모니의 사리는 한정된 양이었으며,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즉, 진신사리의 한정된 수량으로 인하여 사리개념이 확장되었으며, 법사리와 승사리 등이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논자는 진신사리의 한정된 수량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사리신앙 발생 초기부터 마련되었다고 본다. 석존 입멸 후, 각국에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국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진신사리를 대신할 수 있는 방편의 사리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경전에는 근본팔탑설과 함께 근본10탑설<sup>12)</sup>도 나타나고 있다.

『십송률』 등에 “8개의 사리탑과 9번째의 병탑, 10번째의 탄탑이 있다. 붓다의 반열반 후에 10개의 탑을 세우고, 이로부터 후대에 무량한 탑이 시작되었다.”<sup>13)</sup>고 설하고 있다. 즉, 진신사리를 배분했던 병과 화장 후 남은 재를 방편으로 진신사리화하여 병탑과 탄탑<sup>14)</sup>을 건립한 것이다.

이 근본10탑이 방편사리의 연원인 것이다. 병과 재, 두 종류의 방편사리는 사리의 개념을 확장시켰으며, 이후 사리신앙이 다양성을 지

---

11) 주경미, 2003, 『중국고대 불사리장엄연구』, p9

12) 『불설장아함경』에서는 “여래의 사리로 8개의 탑을 세우고, 9번째의 병탑, 10번째의 재탑, 11번째 생시의 머리카락 탑을 세웠다.”(『佛說長阿含經』권4 (『대정장』1, 30상))고 하여, 근본11탑을 말하기도 한다.

13) 『十誦律』권60 (『대정장』23, 447상)

八舍利塔第九瓶塔第十炭塔 佛初般涅槃後起十塔 自是已後起無量塔

14)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재만 용기에 넣어서 봉안한 실례가 있다.(高田修, 1951, 「インドの仏塔と舍利安置法」 『仏教芸術』11, p89) 또한, 『법원주림』에 “이곳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으로서 지금도 누렁고 검은흙에 재와 숯이 섞여 있다. 여기에 기도하는 자는 사리를 얻는다.”(『法苑珠林』권29 (『대정장』53, 501상))고 하여, 후세에까지 열반처의 재와 사리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재를 사리화하지는 않았다.

니고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시대에 따른 불교교리의 변화, 특히 불신관의 변화 등에 따라 사리신앙이 변화한 것도 있지만, 사리 신앙이 현대까지도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진신사리만이 아닌, 방편 사리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와 같은 방편사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탑 내에 봉안되는 경전 및 사리를 대신하는 쌀이나 구슬모양의 보석에 대한 불교교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방편사리를 대표하는 법사리와 연기법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방편사리의 종류

### (1) 법사리

법사리란 붓다의 설법, 즉 경전을 사리화한 것으로, 방편사리를 대표한다. 나카무라 잇끼(中村一基)는 “교단성립초기에 커다란 비중을 지녔던 불사리신앙이 경전에 의해 정식으로 증명된 유력한 교의가 되었다.”<sup>15)</sup>고 하였다. 즉, 법사리가 실행에 머물러 있던 불사리신앙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것이다.

후대에는 신사리보다 법사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1742년에 성립한 『조상양도경』<sup>16)</sup>에서는 ‘사종의 법신사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이며, 생신사리는 그 다음이 된다. 때문에 인도의 풍습에는 법

15) 中村一基, 2006, 『日本<仏舎利>信仰史』『岩大語文』11, p2

16) 『鎌田茂雄 외, 1998, 『大藏經全解説大事典』, p381

본고에서 인용하는 경전들의 성립이나 한역연대에 대해서는 『大藏經全解説大事典』을 참조하였다.



신사리를 많이 이용한다.’<sup>17)</sup>고 하여, 법사리를 신사리보다 상위에 두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법사리의 발생에 대하여 경전 및 불교문헌을 중심으로 간단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원전후에 성립되고 구마라집(343-413)이 한역한 『묘법연화경』에서는 사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약왕이여, 어느 곳이거나 혹은 설하고 혹은 읽거나 혹은 외우고 혹은 쓰며 혹은 경권이 있는 곳이거나, 다 7보의 탑을 일으키되 극히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게 꾸미고, 다시 사리를 봉안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이미 여래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니라.<sup>18)</sup>

『묘법연화경』을 설하거나 독송하는 곳에 건립하는 7보탑에는 다보불의 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탑 내에 사리를 봉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내용상으로는 다보불의 전신사리를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묘법연화경』이 있는 곳에 7보탑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탑과 대승경전을 동등하게 보는 것으로, 이는 법사리신앙의 맹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당서역기』에 ‘가니색가왕은 적동으로 첩판을 만들어서 논장의 글을 베껴 새기고 석함에 넣어서 봉하여 솔도파를 세워 그 속

---

17) 『造像量度經』(『대정장』21, 951상)

四種法身舍利作第一 生身舍利次之 故西土風俗多用法身舍利

18) 『妙法蓮華經』권4(『대정장』9, 31중)

藥王 在在處處 若說 若讀 若誦 若書 若經卷所住處 皆應起七寶塔 極令高廣嚴飾 不須復安舍利 所以者何 此中已 有如來全身

에 안치하였다.<sup>19)</sup>는 기록이 있다. 카니슈카(Kaniṣka)는 4차 결집을 행한 2세기 중엽의 왕으로, 그가 논장과 함께 사리를 봉안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논장을 새긴 동판을 석함에 봉안하고, 석함을 탑 내에 안치한 것은 사리봉안과 다름이 없다. 때문에 카니슈카는 법 사리를 탑 내에 봉안한 것이다.

260년에 성립되고 291년에 무라차가 한역한 『방광반야경』에서는 사리공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구익아, 부처님의 전신사리가 한 염부제에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가지는 것과 반야바라밀을 서사하여 경권을 지니되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을 짓는 것,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겠느냐?” 석제환인이 말하였다. “세존 이시여, 저는 차라리 반야바라밀을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리에 대해서 감히 교만한 뜻이 있지 않고, 감히 공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공양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모든 부처님의 몸이 모두 반야바라밀에서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 여래의 사리도 모두 반야바라밀의 인연에 의하기 때문에 공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sup>20)</sup>

『방광반야경』에서는 사리공양의 공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사리가 모두 반야바라밀의 인연으로 공양을 받기 때문에 경전수지

19) 『大唐西域記』권3 (『대정장』51, 887하)

迦膩色迦王遂以赤銅為鑲 鏤寫論文 石函緘封 建窣堵波 藏於其中

20) 『放光般若經』권7 (『대정장』8, 51중)

佛告釋提桓因言 拘翼 如佛全身舍利 滿一閻浮提持作一分 般若波羅蜜書持經卷復作一分 二分之一中欲取何所 釋提桓因白佛言 世尊 我寧取般若波羅蜜 所以者何 我於舍利不敢有慢意 不敢不恭敬 不為不欲供養 用諸佛身皆從般若波羅蜜出生故 諸佛如來舍利皆因般若波羅蜜因緣故而得供養

의 공덕이 사리공양보다 수승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을 구현화한 대승경전이 붓다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21)</sup> 이 경전을 통하여 3세기 중후반에는 대승경전이 불사리신앙을 대신하여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마라집이 한역한 『유마힐소설경』에서도 1겁 동안 여래의 전신 사리에 공양을 한 사람보다도, 이 불가사의해탈경전을 듣고 받아 지니고, 이해하고 기억하며 독송하고 수행한 자의 복덕이 훨씬 많다.<sup>22)</sup> 고 하였다.

또한, 구마라집이 한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는 “수보리아 어느 곳에나 이 경이 있거든 모든 세상의 천상이나 인간 아수라들이 공양을 올려야한다. 이곳이 곧 불탑이 있는 것이다.”<sup>23)</sup> 고 하여, 대승경전과 불탑을 동격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6세기 초에 보리류지가 한역한 『대살차니건자소설경』에 서는 법사리신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에 들 때에 여덟 대국의 왕이 있으리니, 나의 사리를 퍼뜨리려는 까닭에 그 때 여덟 나라는 사리를 여덟 몫

21) 三友量順, 1982, 「法華經におけるCaityaの出現」 『印度學佛教學研究』 30-2, p886

22) 『維摩詰所說經』권하 (『대정장』14, 556상)

天帝 正使三千大千世界如來滿中 譬如甘蔗竹稻麻叢林 若有善男子善女人 或一劫 或減一劫 恭敬尊重 讚歎供養 奉諸所安 至諸佛滅後 以——全身舍利起七寶塔 縱廣一四天下 高至梵天 表刹莊嚴 以一切華香 瓔珞 幢幡伎樂 微妙第一 若一劫 若減一劫 而供養之 於天帝意云何 其人植福 寧為多不 釋提桓因言 多矣 世尊 彼之福德 若以百千億劫 說不能盡 佛告天帝 當知是善男子 善女人 聞是不可思議解脫經典 信解受持 讀誦修行 福多於彼 所以者何 諸佛菩提皆從 是生 菩提之相不可限量 以是因緣福不可量

23) 『金剛般若波羅蜜經』권하 (『대정장』8, 750하)

須菩提 在處處 若有此經 一切世間天人阿修羅 所應供養 當知此處 則為是塔

으로 나누어 여덟 개의 함에 담고는, 사람마다 하나의 함을 가지고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 큰 탑묘를 세우고는 받들어 공양하리라. 그 때에 아사세왕이 나의 사리 한 묶을 얻고는 황금의 첩 위에 이 수다라를 써서 사리와 함께 모두를 7보로 된 함에 넣으리라. 그리고는 왕사성 밖에다 땅을 파고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는 장엄하고 뛰어나게 꾸민 뒤 사리함을 그 탑 속에 안치할 것이다.”<sup>24)</sup>

위의 경문에서는 아사세왕이 황금판에 경전을 써서 진신사리와 함께 7보의 함에 넣는다고 하여, 근본8탑의 성립과 동시에 법사리신앙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잘못된 내용이지만, 이는 6세기 당시의 법사리신앙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배경은 심지어 587년에 관정이 저술한 『묘법연화경문구』<sup>25)</sup>에 ‘이 경전이 곧 법신사리로 다시 생신사리를 봉안하지 않는다.’<sup>26)</sup>고 하여, 생신사리 봉안을 부정하는 극대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한편, 법사리에 대한 전거로 학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고 있는 『대당서역기』를 살펴보자.

24) 『大薩遮尼乾子所說經』권10 (『대정장』9, 365상)

佛告文殊師利 我涅槃時 有八大國王 為欲流布我舍利故 彼時八國分為八分 置八函中 人取一函 各還本國 立大塔 廟尊重供養 爾時阿闍世王於我舍利所得一分 於金疊上書此修多羅 并與舍利一時俱置七寶函中 於王舍大城外 掘地作坑 於中立塔 莊嚴殊妙 以舍利函置彼塔中

25) 천태지의(508-583)가 제자들에게 『묘법연화경』을 설법한 내용을 제자 관정이 지의의 입적 후에 저술한 것이다.

26) 『妙法蓮華經文句』권8상(『대정장』34, 110하)

此經是法身舍利 不須更安生身舍利

인도의 풍속에는 가루 향을 진흙과 섞어 높이 5-6촌 정도 되는 작은 솔도파를 만들어서 경전의 문구를 써서 그 속에 넣어 두는데, 이것을 법사리라고 불렀다. 그(승군)도 이런 법사리를 만들었는데, 그 수가 차츰 쌓여 커다란 솔도파를 세우게 되었으며, 경문을 쓴 것을 그 속에 모두 거두어 넣고 언제나 공양을 올렸다.<sup>27)</sup>

『대당서역기』에서 말하는 법사리는 단순히 경전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 경문을 넣은 향과 진흙으로 만든 소탑을 가르켜 법사리라고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법사리의 맹아는 『묘법연화경』에서 엿볼 수 있으며, 2세기의 카니슈카왕은 동판에 논장을 새기고, 탑 내에 봉안하였다. 이후, 3-4세기에는 특히 『반야경』 계통에서 법사리 신앙이 전개되고, 『금강경』에서는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불탑이 된다고 하였으며, 『유마힐소설경』 등에서는 불사리공덕보다 경전수지의 공덕이 수승하다고 강조하여 법사리 신앙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법사리신앙이 7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종래의 학설<sup>28)</sup>은, 단순히 『대당서역기』 등의 문헌성립 연대만으로 추정한 잘못된 견해를 알 수 있다.

---

27) 『大唐西域記』권9(『대정장』51, 920상)

印度之法 香末為泥 作小窠堵波 高五六寸 書寫經文 以置其中 謂之法舍利也 數漸盈積 建大窠堵波 總聚於內 常修供養

28) 장미란, 2013, 「한국 사리신앙의 전래와 성격」 『한국불교학』67, p85

또한, 원혜영은 중국의 신강성에서 발견된 북량탑北涼塔은 5세기 것인데, 탑신의 두 번째 단에 『십이인연경』이 새겨져 있으며, 법사리에 대한 기록이 법현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7세기 현장의 기록에서는 사라지므로, 법사리신앙은 5세기 전후에 유행하였다고 한다.(원혜영, 2014, 「사리승배의 발달과 그 고원성」 『한국의 사리신앙 연구』, pp273-274)

국내에서 발견된 법사리는 익산 제석사지 목탑지에서는 동판의 『반야경』, 황룡사지 9층 목탑지에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하, 『무구정경』), 남계원지 7층 석탑에서는 『법화경』, 월정사 9층 석탑에서는 『보협인다라니경』 등이 있다.<sup>29)</sup>

특히, 백제 무왕때 건립된 제석정사 탑에는 사리 6과와 함께 『금강반야경』이 함께 봉안되어 있었다. 이는 백제에서는 남북조시대의 보주형 사리신앙과 함께 고유한 법사리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신사리와 법사리를 함께 봉안한 것은 9세기 황룡사 목탑의 사리장엄에서도 볼 수 있다. 「황룡사 찰주본기」 제3판 내면에 “『무구정경』에 의거하여 소탑 99개에 각 석탑마다 사리 1과와 다라니 4종의 경권을 안치하고 경권 위에 사리를 안치한다.”고 적혀 있다.<sup>31)</sup> 이와 같이, 통일신라시대에는 『무구정경』을 중심으로 법사리신앙이 성행하였다.<sup>32)</sup> 그러나, 동시대인 당나라에서는 법사리를 봉안하는 장엄방식은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 요대에는 주로 『무구정경』을 새긴 경당을 탑 내에 봉안하는 법사리신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sup>33)</sup>

29) 강우방, 1993, 『한국불교의 사리장엄』, pp82-99

30) 주경미, 2009, 「백제의 사리신앙과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p169

31) 주경미, 2008, 「황룡사 구층목탑의 사리장엄 재고」 『역사교육논집』 40, p301

32) 『무구정경』은 미타산(Mitrasānta)이 704년에 번역하였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법사리신앙은 그 이후가 된다.

33) 주경미, 2008, 「요녕성 조양지역의 요대 불사리장엄연구」 중국사연구』53, pp154-155  
주경미는 경당의 존재는 통일신라에서 유행한 무구정경 법사리신앙이 고려, 혹은 발해 유민을 통하여 요나라 황실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 (2) 연기법송

연기법송(pratītyasamutpādagāthā)은 불교의 연기법을 사구계로 표현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연기계, 연생계, 법신계(dharmakāyagāthā)라고 하는데, 『남해기귀내법전』에는 ‘연기법송’<sup>34)</sup>, 『육불공덕경』에서는 ‘법송사리’<sup>35)</sup>, 『묘법연화경현찬』에서는 ‘법신사리’<sup>36)</sup>라고도 한다.

붓다는 마승(Assaṇi)에게 사리불과 목련을 교화하게 하였는데, 마승이 그들에게 연기법송을 들려준다. 이 내용은 팔리어 율장인 『마하박가』(대품)에 전하는데, 남전불교에서는 ‘*ye dhamma formula*’라고 하여 매우 중요시 하였다. 왜냐하면, 사리불과 목련의 개종이 연기법송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37)</sup>

연기법송은 율장을 비롯하여 많은 경전에서 수록하고 있지만,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우선, 법장부의 『사분률』과 화지부의 『오분률』 등의 내용을 살펴보자.

### A-1

아습비(아수바리트)가 말했다. 그대는 알고자 하는가. 여래는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말씀하시고, 또 인연으로 멸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법이 원

34) 『南海寄歸內法傳』권4 「三十一灌沐尊儀」(『대정장』54, 226중) ‘緣起法頌’

35) 『浴佛功德經』(『대정장』16, 799하) ‘法頌舍利’

36) 『妙法蓮華經玄贊』권8 (『대정장』34, 809하) ‘法身舍利’

37) 강희정, 2014,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송과 해상실크로드」 『미술사와 시각문화』13, p38

인이 되어 생기는 것, 그것을 여래는 인이라 하시고, 어떤 법이 원인이 되어 멸하는 것을 큰 사문께서는 또한 그와 같은 이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스승님의 말씀입니다.<sup>38)</sup>

## A-2

이제 그대를 위하여 그 요점만을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나의 스승님께서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또한 인연으로부터 멀하며, 일체의 모든 법은 공하여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sup>39)</sup>

A-1의 『사분율』은 산문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으며, A-2의 『오분율』은 의미만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차이의 배경에는 연기법송이 처음부터 한역본에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로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sup>40)</sup>

그런데, A-1과 A-2에서 연기법송을 설하기 직전의 표현을 살펴보면, A-1은 ‘말했다’라고 하며, A-2는 ‘간략히 말하겠다’고 한다. 즉, 두 경문 모두 계송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

38) 『四分律』권33(『대정장』22, 799상)

阿濕卑言 汝欲知之 如來說因緣生法 亦說因緣滅法 若法所因生 如說是因 若法所因滅 大沙門亦說此義 此是我師說

39) 『五分律』권16(『대정장』22, 110중)

今當為汝略說其要 我師所說 法從緣生亦從緣滅 一切諸法空無有主

40) 황순일, 2014, 「연기법송, 아리야운율, 그리고 빨리 율장대품」 『인도철학』42, pp304-305

황순일은 각주 10은 ‘오분율’ 각주 11은 ‘사분율’이라고 하였는데, 두 각주의 표기가 뒤바뀌어 있다.



### A-3

이때 마승이 계송으로 말하였다. 모든 법은 인연을 쫓아 일어나는 것, 여래는 이것이 인이라고 말씀하셨네, 법은 인연을 다 한다는 것, 이것이 대사문의 설 법이네.<sup>41)</sup>

의정이 700-711년 사이에 한역한 A-3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출가사』에서는 마승이 가타(伽他 gāthā), 즉 계송으로 연기법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전에서도 연기법송이나, 법송사리 등의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연기법송을 『사분률』과 같은 산문의 형식이 아니라, 계송으로 설하고 있는 것은 용수(150-250)의 『대지도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마승비구가 사리불에게 계송으로 설하였다.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서 생기네, 법의 인연이 다하는 것, 나의 스승이신 대성왕이 이 뜻을 이와 같이 설하셨네.<sup>42)</sup>

연기법송은 『대지도론』에서 계송으로 정리된 후, 이후의 경전들은 모두 계송의 형식을 취한다.

---

41)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出家事』권2(『대정장』23, 1027중)

爾時馬勝便以伽他 而告之曰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

42) 『大智度論』권18(『대정장』25, 192중)

如馬星比丘為舍利弗說偈 諸法從緣生 是法緣及盡 我師大聖王 是義如是說

『대지도론』에서는 연기법송을 ‘칠불통계계’와 같이 사성제의 한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那須真裕美, 2008, 「緣起法頌から見る中インドシルブル遺蹟」 『印仏学』57-1, p173 각주10))

한편, 사나굴다가 한역(587-591)한 『불본행집경』에는 흥미로운 내용을 전하고 있다.

## B-1

이때 대덕 아습파유기다는 곧 우바저사에게 말하였다. “존자시여, 나의 스승께서는 인연법을 설하시고 해탈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스승께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계승으로 설하십니다.” 마하승기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섭유사는 다르게 말한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승께서는 다음과 같은 법구를 설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을 따라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을 따라 멸하니, 이와 같이 멸하고 생기는 것을, 사문께서는 이와 같이 말하셨습니다.<sup>43)</sup>

아습파유기다는 마승이며, 우바저사(Upaṭiṣya)는 사리불의 속명<sup>44)</sup>이다. 마하승기사(대중부)와 가섭유사(음광부)는 연기법송을 다르게 설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은 마하승기사(대중부)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sup>45)</sup>

『불본행집경』은 B-1에 이어서 다음의 경문을 설한다.

---

43) 『佛本行集經』권48(『대정장』3, 876중)

爾時大德阿濕波踰祇多 告優波低沙言 仁者 我彼大師 說因緣法 談解脫路 我師偈說如是之法 摩訶僧祇師 作如是說 迦葉惟師 又復別說 是義云何 仁者 我師說是法句 諸法從因生 諸法從因滅 如是滅與生 沙門說如是

44) 사리뿌뜨라(Sāriputra)는 모친의 이름을 따라 사리(Sāri)의 아들이란 의미를 지니며, 그의 어렸을 때 이름이 우빠띠사였다고 한다(황순일, 2014, 「연기법송, 아리야 운율, 그리고 빨리 율장대품」 『인도철학』42, p311 각주33).

45) 위의 경문에 대한 해석을 한글대장경에서는 마하승기사와 가섭유사라고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용어를 황순일은 대중부와 음광부라고 하여 연기법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고는 황순일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황순일, 2014, 「연기법송, 아리야 운율, 그리고 빨리 율장대품」 『인도철학』42, p311).

## B-2

그 때 우바저사 파리바사가는 문자의 법에 잘 통달하였고, 당시 대덕 아습파유 기다 비구는 글귀의 뜻을 잘 이해하였고, 또 그 뜻과 문자를 아주 잘 이해하여 받아들였으니 어찌 많은 글자가 필요하겠는가. 인을 따라 생겨난 모든 법, 그 법은 인을 따라 멀하오니, 인연이 멀하면 곧 도라고, 큰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네.<sup>46)</sup>

B-2에서 중복해서 계송을 설한 이유가 가섭유사(음광부)의 연기법 송을 수록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왜냐하면, 계송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문구는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B-1

諸法從因生 諸法從因滅 如是滅與生 沙門說如是

### B-2

諸法因生者 彼法隨因滅 因緣滅即道 大師說如是<sup>47)</sup>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B-1에서 계송을 ‘범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이 ‘범구’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동시대의 문헌들을 살펴

---

46) 『佛本行集經』권48(『대정장』3, 876중)

爾時優波低沙波離婆闍迦 善達文字之法 時大德彼阿濕波踰祇多比丘 能解文義 又能攝彼義及文字 是何多耶 諸法因生者 彼法隨因滅 因緣滅即道 大師說如是

47) 사리불은 목련의 처소에 가서 그에게는 C-2의 계송을 전해준다.

『佛本行集經』권48(『대정장』3, 876하)

爾時優波低沙波離婆闍迦 向拘離多波離婆闍迦 而說偈言 諸法因生者 彼法隨因滅 因緣滅即道 大師說如是

보면, 길장이 저술(587-597)한 『법화의소』에는 ‘알비(마승)이 계승으로 설하였다.’<sup>48)</sup> 지의가 저술(587)한 『묘법연화경문구』에는 ‘알비가 답하였다.’<sup>49)</sup>고 하여, 연기법송을 ‘법’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불본행집경』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691년에 의정이 찬술한 『남해기귀내법전』의 내용이다.

또한, 무릇 붓다의 형상과 탑을 만들 때 금·은·동·철·진흙·옷나무·벽돌로 만들고 혹은 모래나 눈을 모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만들 때가 되면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리를 안치한다. 하나는 대사의 신골사리이며, 다른 하나는 연기법송이다.<sup>50)</sup>

불교문헌중에서 ‘연기법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남해기귀내법전』이 유일하다. 위의 내용에서는 조상造像이나 조탑을 할 때에, 신사리와 연기법송, 두 종류의 사리를 함께 봉안하라고 한다.

이 문헌은 의정이 인도와 남해를 다니면서 보고 들은 불교의 생활양식을 기록한 것이므로, 7세기경 인도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리 봉안을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신사리와 법사리가 함께 발견된 예가 있다. 앞의 (1)법사리의 항에서도 예를 들은 제석사지를 비롯하여, 익산 왕궁리 오층

48) 『法華義疏』권5(『대정장』34, 515중)

頗轉說偈云 諸法因緣生 是法緣及盡 我師大聖主 是義如是說

49) 『妙法蓮華經文句』권1하(『대정장』34, 10중)

頗轉答云 諸法從緣生 是故說因緣 是法緣及盡 我師如是說

50) 『南海寄歸內法傳』권4(『대정장』54, 226하)

又復凡造形像及以制底 金銀銅鐵泥漆甄石 或聚沙雪 當作之時中安二種舍利 一謂大師身骨 二謂緣起法頌

석탑, 화엄사 서오층석탑 등에서 신사리와 법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주경미는 두 종류의 사리를 같은 공간에 나란히 마련된 사리공 내에 봉안하는 것은 7세기 이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독특하게 발전한 사리장엄 방식이라고 한다.<sup>51)</sup>

그런데, 『남해기귀내법전』과는 동시대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앞서는 규기(632-682)의 『묘법연화경현찬』이 있다.

불상을 조성할 때에는 법신사리를 불상 내에 봉안해야 한다. “모든 법은 인연따라 일어난다고 여래는 말씀하셨네, 저 법은 인연을 다한다는 것, 이것이 대사의 설법이니라.” 이것이 법신사리이니라.<sup>52)</sup>

즉, 『묘법연화경현찬』에서는 연기법송을 ‘법신사리’라고 하고 있으며, 불탑이 아닌 불상을 조성할 때 봉안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묘법연화경현찬』과 『남해기귀내법전』을 통하여, 7세기 후반에는 ‘법신사리’와 ‘연기법송’을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시기적으로는 ‘법신사리’의 용어가 조금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기법송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는 동본이역의 두 경전이 있다.

---

51) 주경미, 2009, 「백제의 사리신앙과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p170

52) 『妙法蓮華經玄贊』권8(『대정장』34, 809하)

佛教造像書法身舍利安於像中云 諸法從因生 如來說是因 彼法從緣滅 大沙門所說 是為法身舍利

## C-1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은 모두 세 가지 몸이 있으니, 법신과 수용신과 화신이다. 내가 열반한 뒤에 만일 이러한 3신에 공양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사리에 공양해야 할 것이니, 이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골사리이며, 둘째는 법송사리이다. 계송으로 말하리라. 모든 법은 연하여 일어나니 여래는 이 인과저 법의 인연이 다함을 설하노라. 이것이 큰 사문의 말이니라. 만일 남자거나 여인이거나 필추의 5종은 반드시 불상을 조성해야 하니, 만일 능력이 없는 자는 최하로 크기가 보리쌀 같게 하고, 솔도파를 조성하되 형상이 대추와 같게 하고, 찰간은 바늘과 같으며, 덮개는 밀기울 조각과 같게 하며, 사리는 겨자씨와 같게 하며, 법송을 써서 그 속에 두어야 한다.<sup>53)</sup>

## C-1

내가 멸도한 후에 두 가지 사리가 있을 것이니, 첫째는 법신이며, 둘째는 화신이다.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들이 사리에 공양하거나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되 보리쌀의 크기와 같게 하거나, 탑을 조성하되 암라의 열매와 같게 하거나, 표찰은 바늘 같고, 덮개는 부평과 같게 하거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되 겨자씨 크기만 한 것을 그 속에 안치할지라도 얻는 공덕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아서 다름이 없다.<sup>54)</sup>

53) 『浴佛功德經』(『대정장』16, 799하)

善男子 諸佛世尊具有三身 謂法身受用身化身 我涅槃後 若欲供養此三身者 當供養舍利 然有二種 一者 身骨舍利 二者 法頌舍利 即說頌曰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 若男子 女人苾芻五衆應造佛像 若無 力者 下至大如麩麥 造窠觀波形如棗許 剎竿如針 蓋如麩片 舍利如芥子 或寫法頌 安置其中

54) 『佛說浴像功德經』(『대정장』16, 798하)

我滅度後 有二種舍利 一者法身 二者化身 若善男子善女人等 供養舍利 造佛形像如大麥等 造塔如菴羅果 表剎如針 蓋如浮萍 持佛舍利如芥子大安置其中 所得功德 如我在世等 無差別

C-1은 710년에 의정이 한역한 『육불공덕경』이며, C-2는 705년에 보사유<sup>55)</sup>가 한역한 『불설육상공덕경』이다. 두 경전은 동본이역임에도 불구하고, C-1의 내용은 연기법송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C-2의 내용은 논문에서 인용된 적이 없다.

본고에서 이 두 경전의 내용을 비교대조한 이유는, 두 경전 모두 사리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C-1과 C-2, 모두 두 종류의 사리에 대하여 설하지만, C-1은 신흔사리와 법송사리, C-2는 법신사리와 화신사리<sup>56)</sup>라고 하였다. 또한, 소탑을 조성하고 소탑 내에 봉안하는 사리도 각기 다르다. C-1은 연기법송을, C-2는 겨자씨만하더라도 불사리를 봉안하라고 한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연유에 대한 고찰은, 본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런데, 『묘법연화경현찬』과 『불설육상공덕경』에서는 법신사리라는 용어가 보인다. 이 용어에 대해 『대반열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법신사리를 존중하려면 모든 부처님의 탑에 예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중생들로 하여금 나의 몸 가운데 탑이라

---

55) 寶思惟는 라망사유존자羅網思惟尊者를 말한다. 보사유의 법명은 아이진나阿爾眞那로, 복인도 가습밀라국인이며, 성은 찰제리이다. 당의 무척천장수 2년에 중국 낙양에 도착하여 왕명으로 천궁사에 거주하면서 불경 번역을 하였다. 당 중종 2년부터 『불공견색다라니경』 7부를 번역한 후 다시는 불경을 번역하지 않았다.

56) 사리관련 용어에 있어서 법신사리와 화신사리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법신사리는 법사리의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신사리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법사리의 의미로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경우, 법신사리를 진신사리의 의미로 규정한다면, 화신사리는 방편사리가 되는 것이다. 만약 개념을 수용할 수 있다면, 방편사리는 또 다른 용어로 화신사리라고도 할 수 있게 된다. 향후의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는 생각을 일으키고 예배하고 공양하게 하였으니, 이런 중생들이 나의 법신으로 귀의할 곳을 삼게 하는 것이다.<sup>57)</sup>

즉, 불탑은 붓다의 법신이 있는 곳이며, 불탑이 바로 법신사리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나, 7세기의 『묘법연화경현찬』에서는 연기법송을 법신사리라고 하여, 위의 경문에서 설한 진신사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사리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신사리를 법사리의 개념으로 수용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후대의 불공(705-774)이 한역한 『성가니분노금강동자보살성취의계경』<sup>58)</sup>에서도 법신사리를 법사리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작법이 있으니, 뛰어난 과보를 성취하려 하는 이는 신통월(1월·5월·9월)과 백분(초하루부터 보름까지의 기간)에 바닷가나 강가로 가서, 모래와 진흙에 찍어서 탑을 만들고 탑 안에 연기계(법신사리게)를 안치하고 탑 앞에 상을 안치한다.<sup>59)</sup>

위 경전에서는 연기계를 법신사리게라고 하여, 연기법송과 법신사리의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

57) 『大般涅槃經』권8(『대정장』12, 409하)

若欲尊重法身舍利 便應禮敬諸佛塔廟 所以者何 為欲化度諸衆生故 亦令衆生於我身中起塔廟想禮拜供養 如是衆生以我法身為歸依處

58) 불공은 금강지와 함께 720년 낙양에 왔으므로 이 경전은 그 이후에 한역되었을 것이다.

59) 『聖迦毘訖怒金剛童子菩薩成就儀軌經』권상(『대정장』21, 106중)

又法欲求成就殊勝果者 於神通月白分 就趣海河側 或印沙印泥為塔 塔中置緣偈(即法身舍利偈)置像於塔前



청나라의 공포사포<sup>60)</sup>가 1742년에 번역한 『불설조상량도경해』에는 ‘인연주’<sup>61)</sup>라고 하며, 5개의 이역 중에서 의정의 역을 취하였다고 부연설명하였다.

한편, 연기법송은 발생 초기에는 조상이나 조탑과는 무관한 사성제와 관련하여 설하여졌는데, 후대에도 불법을 깨닫는 교리로서만 설명되는 경우가 있다. 『대비로자나성불경소』<sup>62)</sup>가 그것이다. “세간과 출세간법을 깨닫는 것은 모두 다 인에 있고 연에 있는 것이다. (중략)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긴다네, 여래는 이것을 인이라고 말하셨네, 저 법은 인연이 다 하는 것, 이것이 대사문의 설이라네”<sup>63)</sup>라고 하여, 계송에 대하여 특별히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연기법송이 새겨진 최초의 출토품은 3-4세기의 사르나트 봉헌탑에서 발견된 석판이다.<sup>64)</sup> 또한, 인도에서는 연기법송이 새겨진 봉헌물이 굽타시대(4세기초-6세기말) 무렵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사리기를 제외한 봉헌물은 대부분 진흙을 이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운반이 용이하여 각국으로 전해졌다.<sup>65)</sup>

60) 工布查布는 몽골인으로 원명은 미상이다.

61) 『佛說造像量度經解』(『대정장』21, 952중)

譯漢因緣呪曰(見伍異譯中 取義淨法師譯)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

62) 이 경전은 725년 선무외가 『대일경』을 한역하고 논술한 것을 제자 일행이 쓰고 기록한 것이다.

63) 『大毘盧遮那成佛經疏』권7(『대정장』39, 648중)

覺世間出世間法 皆悉有因有緣(중략) 所謂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也

64) 那須真裕美, 2008, 「縁起法頌から見る中インドシルブル遺蹟」 『印仏学』57-1, p169

高田修도 현존 유물로 사르나트에 있는 6세기에 건립된 다메크Dhamek탑에서 연기법송을 석판에 새긴 것이 발견되었다.(高田修, 1951, 「インドの仏塔と舍利安置法」 『仏教芸術』11, p70)고 한다. 이 두 유적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65) 강희정, 2014,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송과 해상실크로드」 『미술사와 시각문화』13, p38



〈도1〉 경주 석장사지 연기법송명탑상문전  
(경주 동국대박물관 제공)



〈도2〉 황룡사 9층목탑지 연기법송  
(강희정 도6)

국내에서도 연기법송 유물이 경주 석장사지에서 발견되었다. ‘연기법송명탑상문전편’이라고 칭하고 있다. 〈도1〉

### 연기법송명탑상문전편(통일신라)

素紋外緣 내부에 장방형의 구획을 연이어 긋고, 그 내부에 음각으로 불탑과 불상을 각각 10구씩 새겼다. 불상은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 하였으며, 두 손은 설법인을 나타낸 것으로 짐작되며 모두 다 두광을 지니고 있다. 불탑은 단층 기단 위에 초층탑신과 옥개를 지닌 단탑으로서 탑신부에는 우주隅柱를 표시하여 일종의 감실의 형태를 형성하였다. (중략) 그런데 이곳에서 주목되는 것은 탑과 탑 사이에 4줄로 다음과 같은 연기법송을 횡서로 左書淺刻한 점이다.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자경0.5cm)<sup>66)</sup>

6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4, 『석장사지』(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제4책), p47



〈도3〉 중국시안 출토 연기법송  
(강희정 도10)

즉, 통일신라시대에는 연기법송을 새긴 전으로 탑을 건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석장사지에서는 사리공양구도 함께 발견되어, 당시에는 신사리와 법사리를 함께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사리라고 하여도, 경전을 탑내에 봉안하는 형식이 아니라, 돌에 연기법송을 새겨 법사리의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

기법송명탑상문전편’이 탑의 주재료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탑 주변의 장식물로 사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외함에서도 연기법송이 발견되었다.<sup>67)</sup> 사리함의 바닥에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이라고, 붓으로 써서 그대로 새긴 것처럼 굵은 필체로 되어 있다.

석장사와 보원사지의 연기법송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출가사』이나 『남해기귀내법전』등의 계송과 일치하고 있어, 이 경전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룡사 9층목탑지에서도 ‘諸法因緣生, □□□□滅’이라고만 새겨진 은판이 발견되었다.〈도2〉 이는 872년에 황룡사 목탑 중건시에 봉안한 것으로, 황룡사 찰주본기에 ‘법사리2종을 봉안하였다.’라고 한 법사리인 것이다.

67) 얀 폰테인(Jan Fontein)은 보원사지 사리함의 연기법송이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것이라고 하였다.(얀폰테인, 1991,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 『미술자료』47, p98)

한편, 중국 시안의 역사박물관 소장의 전불에는 불상의 대좌 아래 한역 연기법송이 새겨져 있다.〈도3〉 명문은 諸法從緣生 如來說是因 諸法從緣滅 大沙門所說이다. 그런데, 이 명문은 위의 표에는 출전이 없어, 다른 한역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68)</sup>

### Ⅲ. 나가기

불사리신앙은 석존 입멸 후, 근본팔타의 성립과 더불어 진신사리와 방편사리의 개념을 병립하게 되는데, 이는 근본10타설을 근거로 한다.

본고는 방편사리 중에서 법사리와 연기법송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법사리의 맹아는 『묘법연화경』에 보이며, 2세기의 카니슈카왕은 논장을 새겨 탑 내에 봉안하였다. 이후, 3-4세기에는 특히 『반야경』 계통에서 법사리 신앙이 전개되었다. 『금강경』은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불탑이라고 하였으며, 『유마힐소설경』등에서는 불사리공덕보다 경전수지의 공덕이 수승하다고 강조하여 법사리 신앙을 확고히 하였다.

연기법송은 『사분륜』과 『오분륜』 등의 율장과 다수의 경전에서 설한다. 『사분륜』에는 산문으로 설해졌던 내용이 계송의 형식으로 정형화되는 것은 『대지도론』에서이며, 이후 연기법송은 계송의 형식으로 전승된다.

특히, 『불본행집경』에서는 연기법송의 내용이 대중부와 음광부가

---

68) 강희정, 2014,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송과 해상실크로드」 『미술사와 시각문화』13, p48의 도판10 참조

다르게 설한다고 하였으며, 이전의 경전들은 연기법송을 단순히 ‘게송’이라고 칭하였는데, 『불본행집경』에서는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기법송이라는 용어는 『남해기귀내법전』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다. 『묘법연화경현찬』에서는 ‘법신사리’라고 하는데, 이들 문헌에서 불상이나 불탑을 조성할 때 연기법송을 봉안하라고 하여 불탑과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석장사와 보원사지의 연기법송은 이들 문헌의 게송과 일치하고 있어, 이 경전계통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논자는 초기에는 사성제와 관련하여 설하여진 연기법송이, 불탑과 관련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법사리신앙의 영향이라고 본다. 짧은 게송의 형식이면서도 붓다 설법의 진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탑신에 새기거나 탑에 봉안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4세기 이후 확립된 법사리의 영향을 받은 연기법송이 문헌상에는 7세기에 나타나고 있다. 3세기 동안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면밀한 문헌적 고찰이 요구되는 점이다.

둘째, 카니슈카왕이 탑 내에 봉안한 ‘논장의 글’이 『대지도론』의 연기법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문헌이나 유물이 발견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연기법송과 불탑의 관계는 2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사리와 연기법송의 상관관계는 전환되어, 법사리신앙은 연기법송의 영향으로 발생하게 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1. 원전

- 『佛說長阿含經』권4 (『대정장』1)
- 『佛本行集經』권48 (『대정장』3)
- 『放光般若經』권7 (『대정장』8)
- 『金剛般若波羅蜜經』 (『대정장』8)
- 『妙法蓮華經』권4 (『대정장』9)
- 『大薩遮尼乾子所說經』권10 (『대정장』9)
- 『大般涅槃經』권8 (『대정장』12)
- 『維摩詰所說經』권하 (『대정장』14)
- 『金光明經』권4 (『대정장』16)
- 『浴佛功德經』 (『대정장』16)
- 『佛說浴像功德經』 (『대정장』16)
-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대정장』19)
- 『造像量度經』 (『대정장』21)
- 『聖迦柁忿怒金剛童子菩薩成就儀軌經』권상 (『대정장』21)
- 『四分律』권33 (『대정장』22)
- 『五分律』권16 (『대정장』22)
- 『十誦律』권60 (『대정장』23)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出家事』권2 (『대정장』23)
- 『大智度論』권18 (『대정장』25)
-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疏』권하 (『대정장』33)
- 『妙法蓮華經文句』권1하 ; 권8상 (『대정장』34)
- 『妙法蓮華經玄贊』권8 (『대정장』34)

- 『法華義疏』권5 (『대정장』34)
- 『大毘盧遮那成佛經疏』권7 (『대정장』39)
- 『佛祖歷代通載』권22 (『대정장』49)
- 『宋高僧傳』권23 (『대정장』50)
- 『廬山記』권2 (『대정장』51)
- 『大唐西域記』권3 ; 권7 ; 권9 (『대정장』51)
- 『法苑珠林』권29 ; 권40 (『대정장』53)
- 『南海寄歸內法傳』권4 (『대정장』54)
- 『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권중 (『대정장』55)

## 2. 단행본 · 사전 · 도록

- 강우방, 1993, 『한국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4, 『석장사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제4책)
- 鎌田茂雄 외, 1998, 『大藏經全解説大事典』 雄山閣出版株式会社
- 주경미, 2003, 『중국고대 불사리장엄연구』 일지사
- 원혜영, 2014, 「사리송배의 발달과 그 고원성」 『한국의 사리신앙 연구』 운주사
- 오인, 2015, 「경전에 보이는 사리관 - 불교사상과 방편에서의 시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3. 학술논문

- 안폰테인, 1991,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 『미술자료』47
- 신대현, 2006, 「진신사리의 한국 내 전파 과정에 대하여(Ⅱ) - 신라의 각덕 및 자장이 전래한 진신사리를 중심으로」 『불교고고학』6
- 강우방, 2009, 「미륵사탑 발견 사리장엄구와 왕궁리 탑 발견 사리장엄구의 상관성 - 장엄구 영기문의 상징구조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학술발표 논문집』
- 주경미, 2008, 「황룡사 구층목탑의 사리장엄 재고」 『역사교육논집』40
- 주경미, 2008, 「요녕성 조양지역의 요대 불사리장엄연구」 『중국사연구』53
- 주경미, 2009, 「백제의 사리신앙과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 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 장미란, 2013, 「한국 사리신앙의 전래와 성격」 『한국불교학』67
- 강희정, 2014,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송과 해상실크로드」 『미술사와 시각문화』13
- 황순일, 2014, 「연기법송, 아리아운율, 그리고 빨리 율장대품」 『인도철학』42
- 高田修, 1951, 「インドの仏塔と舍利安置法」 『仏教芸術』11
- 三友量順, 1982, 「法華經におけるCaityaの出現」 『印度學佛教學研究』30-2
- 中村一基, 2006, 「日本〈仏舍利〉信仰史」 『岩大語文』11
- 那須真裕美, 2008, 「縁起法頌から見る中インドシルブル遺蹟」 『印仏学』57-1



# Stupa and ‘Alternative Sarira(relic)’

Focus on Sutra Contexts

**O-In(Choi, Bok Hee)** JoongAang Saṅgha University

---

This article divides Sarira into Buddha relics and Alternative sarira. Buddha’s relics in this article limits enshrined relics in stupas by the royals of eight countries. This ‘Alternative Sarira(relic)’ term can not be found in any sutras and was not popular term among scholars. My efforts defines ‘Alternative Sarira’ as Buddha relics supplements such as Dharmakaya sarira, pratityasamutpadagatha, minature stupa, Buddha images and artificial pearl-like beads.

Dharmakaya sarira as a representative ‘Alternative Sarira’ can be found in Lotus Sutra. And Panna section sutras(Wisdom Sutras) refers belief of Dharmakaya Sarira which can be shown Lotus Sutra and Vimalakirti Sutra identified the dharma as the true body of the Buddha. According to Din Fu Bao’s Dictionary of Buddhist Terms, a Dharma body śarīra is “the Sutra as told by the Buddha: That which is unchanging in what is told by the Buddha, is of the same property as the essence of the Buddha

himself, hence it is called the ‘dharma body śarīra’”.

Pratityasamutpadagatha and its connection to consecrating stupas as an alternative the Buddha relic shows the equation of the Buddha and his teaching in sutra where the Buddha states: “He who sees the Dhamma, Vakkali, sees me; he who sees me, sees the Dhamma.”